

“그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도다”
한국인 선교사, 러시아서 북한 별목공·탈북민 돕다 간첩죄로 체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별목공과 탈북민들을 돕던 한국인 선교사가 간첩죄로 체포돼 현지 교도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내 언론과 해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백원순이라는 한국인이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말 추가 조사를 위해 모스크바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레포르투보 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러시아는 백 선교사의 사건을 일급 기밀로 분류했으며, 법원은 6월 15일까지 구금을 연장하도록 명령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우리 정부에도 구체적인 혐의를 설명하지 않았다.

타스통신은 12일 익명의 법 집행 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백 선교사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백 씨가 구금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영사관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별목공과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사역을 하던 백 선교사는 지난 1월 말,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백 목사는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과 러시아를 오가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북한인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고 간접 지원을 하면서 북한에 빵 재료를 보내기 위한 공장 건립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백 선교사는 한국에 머물고 있던 아내와 현지 정착 준비를 마친 뒤, 1월 말 아내와 함께 러시아에 입국해 며칠간 생활하던 중 체포됐다. 현재 백 선교사의 아내는 풀려나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선교사는 국내의 한 소외계층 지원 단체에 적을 두고 해외 활동을 펼쳤으며 해당 단체는 백씨의 구명 활동에 나설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보안국은 체포영장을 갖고 백 선교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는 전언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가 자기 백성은 양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 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사편 78:52-53)

하나님, 탈북민을 지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을 특별한 혐의도 없이 간첩죄로 구금한 러시아 당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붙잡힌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석방될 날이 확실하지 않은 백원순 선교사님과 더불어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주님의 은혜로 속히 건짐받게 하옵소서. 또한, 중국, 북한, 러시아의 밀접한 관계를 주께서 다스리시고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사 이 땅의 영혼들이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미국 LGBT 비율 7.6%…10년 전보다 2배 증가

미국에서 자신을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전했다.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미국인 중 '이성애자, 레즈비언(L), 게이(G), 양성애자(B), 트랜스젠더(T) 중 자신을 어느 범주로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가 하나 이상의 LGBT 그룹에 속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LGBT로 응답한 비율은 갤럽의 2012년 첫 조사 때(3.5%)나 2013년의 3.6%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응답자 중 양성애자(4.4%)가 가장 많았고, 특히 18-26세인 Z세대는 22.3%가 자신이 LGBT라고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이 자신을 LGBT로 인식한 비율(8.5%)이 남성(4.7%)의 2배 가까이 높았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한일서 2:1-2)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잃어버린 법과 교육, 사회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10년 사이 2배 증가했다는 미국의 소식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특별히 인식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러웠던 생명이 진리를 떠나 생기를 잃고 꺼져버린 영혼처럼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복음으로 다시 소생시켜 주소서. 교회를 통해 모든 영혼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창세 전 주께서 꿈꾸신 원형의 모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 나이지리아 무장세력…피랍 학생·교직원 287명 몸값 8억 요구

나이지리아에서 지난주 학생 등 287명을 납치한 무장세력이 이들의 석방 조건으로 총 10억 나이라(약 8억 2,000만 원)를 요구했다고 13일 로이터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마을 지도자 주브릴 아미누는 12일 납치범들의 전화를 받았으며 “납치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몸값을 보내라는 최후통첩”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주 쿠리가 마을 공립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등 최소 287명이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반디트’로 불리는 현지 무장단체의 몸값을 노린 민간인 공격이나 납치가 빈번하다. 전날에도 카두나주 부다 마을에서 마을 주민 61명이 납치됐고, 지난 9일에는 소코투주 바쿠소 마을 학교 기숙사에 무장세력이 침입해 어린이 15명을 끌고 갔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약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잠언 28:20,22)

하나님, 마치 도미노와 같이 이 땅에 계속되는 납치 사건과 학교를 침입해 교직원과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재물 얻기에만 급급한 무장 세력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반디트의 무자비한 협박 소식에 밤낮 눈물로 지낼 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납치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이들의 생명을 주께서 보존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종족 간의 분쟁과 종교 간의 대립이 심각한 박해로 이어져 기독교인이 편안히 다닐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임하는 나이지리아 되게 하소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의료관광 확대 위해 외국인 부부에 대리모 출산 재허용**



태국 정부가 의료 관광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부를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건의료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리모 출산에는 부부의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만 허용 대상이며,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는 부부가 속한 나라에서 보호받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태국은 세계에서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상업적 대리모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는 우크라이나, 조지아, 콜롬비아, 멕시코, 러시아, 인도 등이 있다.

또한, 대리모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영국, 호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라오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의료관광 확대뿐 아니라 태국의 난임 부부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은 이달 말 내각에 제출돼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의회로 넘어간다.

태국은 지난 2015년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당국이 통제하지 않아 대리모 출산이 무분별하게 상업화됐다는 사회적 비난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난임인 태국인 또는 태국·외국인 부부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 왔다.

일례로 2014년에 한 호주 부부가 태국 여성을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의뢰하여 쌍둥이를 출산하였다. 그런데 이 중 한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해 국제적으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일본인 남성이 태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10명이 넘는 아기를 태어나게 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줬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로새서 3:5-6,10)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대적하는 태국을 꾸짖어 주시고, 법 개정을 막아주소서. 태국의 교회를 통해 생명의 주권을 가로챈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도록 부추기는 악한 사탄의 간계를 드러내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신 복음을 선포케 하소서. 그리하여 태국과 열방의 가정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회복되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 파키스탄 기독교 소녀, 무슬림에 납치돼 강제 개종

파키스탄에서 지난달 납치돼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한 10세 소녀의 기독교인 부모가 딸이 성매매 범에게 팔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11일 모닝스타뉴스가 전했다. 소녀의 아버지인 수하일 마시흐는 납치범 '샤우카트 샤'가 아이들을 협박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개종했다는 법정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뒤 종교 교육을 제공한다는 구실로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월 15일, 마시흐에게 딸이 이슬람 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법원은 딸의 요청에 따라 여성 보호소로 보냈다. 그러나 마시흐는 납치범이 보호소에서 딸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시흐는 "이것이 샤의 수법"이라며 "피해자들이 샤에게 넘겨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그가 성매매에 연루돼 있고, 미성년 소녀들을 팔아넘기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마시흐는 가족들이 샤를 납치 혐의로 고소했음에도 로산 월라 경찰서가 딸이 납치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통치자들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이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값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리로다(사편 58:1,11)

하나님, 파키스탄에 핍박받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어린 소녀들의 납치에 하루도 평안할 수 없는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소녀들을 구출해 주십시오. 정의를 말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는 경찰의 잠잠함을 책망하시고 이슬람 개종 과정을 미끼 삼아 소녀들을 협박하고 납치하는 샤우카트 샤와 범죄조직들을 추적하사 주의 공의를 이루소서. 신성모독범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며 이슬람 가치관으로 우상숭배의 죄로 끌고 가는 사탄의 비열한 간계를 파하시고 성도들의 고난에 믿음을 더하사 하늘 상급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 아르헨티나, 마약 폭력·살인 대응 위기 대책위원회 신설

아르헨티나 정부는 앞으로 위기 대책위원회를 신설해 마약 밀수와 관련된 폭력 범죄와 살인 등에 대응하기로 하고 살인율이 전국 평균보다 5배나 많은 로사리오시에 연방 정부의 보안군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뉴시스가 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신임 밀레이 대통령의 강력한 공약에 따라서 마피아 마약 밀매 조직들과 로사리오시에서 살인과 테러를 일삼던 기존 폭력단체들의 단속에 나섰다. 로사리오는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거리에 있는 도시로 2023년 한 해 동안 25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산타페 공공안전 관측소 통계에 따르면 이곳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피살자의 비율은 지난해 1년간 22명으로 전국 평균 4.2명보다 거의 5배에 달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야고보서 4:1-3)

하나님, 살인과 폭력, 마약과 테러 같은 범죄 피해로 인해 위기 대책위원회를 신설해야 할 만큼 치안이 위태로운 아르헨티나를 불쌍히 여기사 범죄조직들의 불법을 잠잠케 하옵소서. 정부에 주의 지혜를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욕으로 시작된 죄의 뿌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끊을 수 있음을 깨달아 이 땅이 가난하고 낮은 심령으로 주를 찾게 하소서. 악이 성행하는 이때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리를 지킬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 영혼 구원에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소서”
무장단체 공격으로 수천 명 탈출...인도주의 위기 악화



모잠비크 북부에서 수천 명이 폭력을 피해 탈출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유엔난민기구(UNHCR) 대변인 윌리엄 스펀들러(William Spindler)가 지난 1일 제네바 국제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유엔 인권정보 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스펀들러 대변인은 유엔난민기구(UNHCR)는 모잠비크 북부 카보델가도 지역에서 점점 악화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근 비국가 무장단체의 폭력 급증으로 수천 명의 주민이 남부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스핀들러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공격이 발생한 이후 마코미아, 치우레, 메쿠피, 모심보아 다 프리아, 무이돔베 지역에서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로 피난을 떠났다. 치우레 지역에서만 5만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3만 3,000명 이상이 남플라주(州)로 넘어왔다.

이재민의 90%가 여성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다. 새로 발생한 이재민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다. 이는 취약 계층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표적 지원과 보호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폭력으로 인해 주거 지역과 학교, 보건소 등 종교 및 사회 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됐다. 이러한 만연한 파괴는 비국가 무장단체의 폭력과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70만 9,000명 이상의 사람이 국내 난민으로 남아 있는 모잠비크의 이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피해 가족들은 남플라주에 있는 난민촌과 호스트 커뮤니티(피난민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지역 사회)로 피신했으며, 마라타 네 난민 정착촌에는 약 8,000명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다.

모잠비크 북부 지역의 카보 델가도주에서 최근 몇 해 동안 발견된 세계 천연가스 매장지 가운데 최대 규모의 가스전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자원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충분한 협의절차나 제대로 된 보상 없이 강제로 이주시켰다. 이에 불만을 품은 지역 청년들이 반군 등 무장단체에 가입하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시편 40:1,11,17)

하나님, 무장단체의 폭력 급증과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안식할 곳을 찾아 몰려온 수많은 이재민과 난민, 망명 신청자들의 연약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들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여성과 어린이를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고 위정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나그네의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부에 불만을 품은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굳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평을 틔우지 않게 영혼을 갹아먹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구원이 이뤄지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프랑스, 조력 사망 법안 추진...불치병 환자 직접 극약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문의 동의하에 불치병 환자가 약물을 직접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조력 사망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AFP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11일 전했다. 이 법안은 5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단기·중기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앞서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다. 이후 2016년에는 의사가 고통스러워하는 말기 환자에게 강력한 안정제를 계속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다.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린도전서 15:56,58)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과 평안일진대, 선택적 죽음으로 고통을 해결하려 하는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의 미련한 마음을 벗겨주십시오. 낙태 자유 명시에 이어 조력 사망 법안 추진까지 생명 경시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프랑스가 스스로 피조물임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소서. 교회가 복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이 땅을 섬기는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를 찾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견실한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 한국, 헌정사 첫 동성애자 국회 입성 우려...야권 비례대표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소장이 더불어민주당 최종 4명의 비례대표 국민후보 중 한 명으로 선출돼 헌정사 최초 동성애자 국회의원이 나올 위기에 놓였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1일 전했다. 임 전 소장이 최종 당선될 경우 군 안팎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전면에서 섰던 그의 이력에 비추어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 관련 입법 활동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의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그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해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LGBT·동성애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그를 통해 주도될 것은 뻔하다. 특히 변희수 하사 사건에서 보듯, 군 안보 문제와 지휘권이 쏠대밭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문제 심각성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전도서 9:17-18)

하나님, 바른 가치관으로 대한민국에 올바른 정의를 행할 수 없는 한 비례대표 후보 선출 소식에 불안한 국가 안보와 법률에 대한 우려로 주님께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미련한 자의 호령 소리에 반응하지 않도록 국민들을 진리로 깨우사 동성애자 국회의원 당선을 막아주시고 우매한 자를 부추기는 악한 사탄의 간계를 무너뜨려 주소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 참 지혜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자신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 모든 영혼이 깨달아 진리를 경청하며 순종하는 은혜의 땅 되게 하소서.